1991年度行政事務監査　文化敎育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公報官

日時　1991年12月3日(火)
場所　文化敎育委員會

(10時 20分 監査開始)

○委員長 權會榮;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委員님 여러분과 또 執行部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 및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에 의하여 公報官에 대한 1991年度 서울特別市議會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할 것을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그리고 受監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第3代 서울特別市議會가 개원된 이래 처음 實施되는 1991年度 서울特別市議會 行政事務監査 實施에 우리 委員 여러분은 首都 서울의 주인인 市民의 代辯者로서 책무가 막중하다는 使命感을 가지고 監査에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평소 市民과의 대화와 議政活動에서 획득하신 각종 情報와 資料를 바탕으로 市民의 불편한 사항과 市民의 民願대상, 그리고 잘못된 行政執行을 바로잡고 市政의 올바른 指標를 제시하는 行政事務監査가 되도록 내실있고 심도 있게 다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은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성실

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行政事務監査를 통하여 效率的으로 執行部를 통제하고 市民福利增進을 도모하는 최선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어 委員 여러분은 市民의 충실한 代辯者로서 所任을 다하는 委員像을, 執行部 公務員은 市民의 公僕으로서 市民을 위한 奉仕像을 우리 서울市民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本 行政事務監査가 원만하게 進行되도록 委員 여러분과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의 많은 協助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被監査機關長의 宣誓가 있겠습니다. 公報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宣誓文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關係公務員은 그 자리에서 起立하시고 公報官은 宣誓한 후 宣誓書에 署名捺印하여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公報官은 나오셔서 宣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相鎭; (宣誓)

○委員長 權會榮; 다음은 公報官所管 業務現況報告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公報官의 인사에 이어 幹部紹介를 한 다음 業務事項을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相鎭; 존경하는 權會榮 委員長님 그리고 文化敎育委員님 여러분을 모시고 그 동안 推進해 온 市政弘報業務를 報告드리고 指導말씀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公報官室에서는 市政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고 市民들의 意見을 收斂해서 市政에 적극 반영케 함으로써 信賴받을 수 있는 市政具現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第50回 臨時會議에서도 여러 가지 忠告와 高見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번 定期監査에서도 市 公報業務가 더한층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高見과 指導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業務現況을 報告드리기 전에 저희 公報官室 幹都를 먼저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 : 弘報計劃擔當官 金內一, 公報係長 延益欽, 報道係長 李錫和)

저희 公報官室 職制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公報官 所管 業務報告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報告)

公報官 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公報官室 業務現況과 實績에 대해서 報告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음은 각 委員님들의 政策質疑와 執行部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答辯에 앞서 行政監査의 원만한 進行을 위하여 각 委員님들께 參考의 말씀과 諒解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監査進行은 委員님들의 政策質疑를 하시고 執行部의 성실한 答辯準備를 위하여 잠시 停會한 후 監査를 續開하여 執行部의 答辯을 듣고 補充質疑가 있으면 補充質疑에 이어서 委員님들이 質疑를 듣고 停會한 후 다시 監査를 續開하는 順序로 進行하겠습니다. 그러면 委員님들께서는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喆鎬 委員; 저, 質問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말씀하세요.

○李喆鎬 委員; 李喆鎬 委員입니다. 여기 資料에 보면 3個 補助團體인 韓國自由總聯盟 서울支部 그 다음에 서울特別市在

鄕軍人會, 社團法人韓國參戰軍協會에 대한 支援金額이 1991年을 基準으로 해서 自由總聯盟에 1億 500萬원, 在鄕軍人會에 510萬원, 유엔韓國參戰軍協會에 3,000萬원씩을 支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3個團體에 支援해야 된다는 法的 根據와 支援金에 대한 각 團體別 使用處를 확인 또는 報告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他 團體와 比較해서 自由總聯盟의 支援金이 每年 증가한 理由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有線放送에 대해서 質問드리겠습니다. 有線放送事業 許可申請 3,092件 중 本許可보다 臨時許可가 많은 理由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無許可인 상태로 147個業體가 營業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利用市民들에게 被害를 줄 여지가 많은 것으로 判斷이 되는데 서울市에서는 行政力을 發動해서 團束摘發된 業體는 강력하게 措置하고 許可與件을 강화해서 群小業體 亂立을 防止할 用意는 없는지 이 점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市民新聞에 대해서 質問하겠습니다. 서울市民新聞은 市政에 대한 정확한 弘報로 一般 言論媒體가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을 補充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發行한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配付處를 살펴보면 서울市 本廳에 780部, 각 區廳에 11萬 6,000部로써 전체 發行 114萬 5,000部 중 약 80.5% 11萬 6,780部가 서울市政을 直·間接的으로 擔當하고 있는 公務員이나 그 외 關聯者에게 配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配付處 選定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判斷이 섭니다. 市政의 정확한 弘報를 위해서는 서울市 市政을 전혀 모르는 一般市民이나 각계 專門家들에게 配付되어야 될 것으로 思料됩니다. 따라서 서울市 本廳 및 각

區廳에 配付되는 기존의 部數를 대폭 줄이도록 하고 서울市政을 市民이 알아야 한다는 그런 次元에서 또는 서울市民新聞發行趣旨에 符合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市民들이 서울市民新聞을 쉽게 접할 수 있게 配付處를 選定하는데 一般市民 위주로 전환할 用意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數値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서울市 重點事業 認知經路를 보면 應答者의 71.6%가 서울市民新聞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應答해서 매달 3回 발송되는 서울市民新聞이 우리 市의 重點事業을 認知하는 수단으로써 效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一般市民에게 가는 것은 약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도 區廳이나 市의 從事者들을 위주로 한 應答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러한 統計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質問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또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趙貞順 委員; 趙貞順 委員입니다. 公報室에서 쓰여지는 91年度 年間 豫算이 14億원을 上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市政政策을 알리기 위한 최대의 窓口가 公報官이라 생각합니다. 豫算을 살펴보면 91年度 總 豫算額이 14億 3,000萬원이 되는데 情報費 또한 消費性豫算인 補償金을 포함하면 2億 5,000萬원인 豫算額의 13%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金까지 合算하면 23%가 넘는 豫算이 사용됩니다. 여기에 대한 見解를 듣고 싶습니다. 弘報의 母體인 公報官이 市政의 살림살이를 세밀하게 報道키 위해서 좀더 구체적인 業務編成을 着眼하여 迅速, 正確하게 알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意見입니다. 따라서 細部單位事業을 다양한 弘報官의 弘報機能에 역점을 두어 市民 한 사람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最善策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市政弘報要員들의 委囑基準을 보면 地方自治團體와 住民과의 중간적 입장에서 意思疏通의 中繼者 役割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갖춘 인사들이 任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弘報要員들의 일인당 弘報實績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節次에 의했는지 委囑을 하는데 어떤 節次에 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市에서 指命하였는지 그 배경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91年度 10月 30日 현재 中繼有線放送 許可件數가 40個 業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有線媒體들이 한창 感受性이 예민한 靑少年들의 情緖生活을 해치는 내용의 프로를 심야를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靑少年들에게 危害한 성인프로는 될 수 있는 한 指導를 강화해서 건전한 프로로 유도하였으면 합니다. 中繼有線이 營業所나 일반가정에 거의 연결된 것을 감안하여 許可申請時 事前審議를 거쳐 반영될 프로를 선정하고 또한 일정한 條件을 제시하여 하루중 20分~30分의 時間을 割愛하여 市政살림이나 각종 主要 施策 및 市政紹介와 推進事業 등을 反映하여 市民으로 하여금 서울市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機會를 附與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官·民 相互간 紐帶强化에 큰 몫을 차지하리라 생각되는데 公報官 見解와 施行可能 與否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豫算에 대해서는 별 異議가 없습니다.

○金相復 委員; 저, 委員長님.

○委員長 權會榮; 말씀하세요.

○金相復 委員;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金相復 委員입니다.

우리 弘報팀들은 원체 達辯이고 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定期會입니다. 전에 常任委員會 하는 것처럼 質問을 허공에 대고 한참 하고 난 뒤에 또 停會를 해서 또 答辯을 듣는 實體感이 없는 이러한 會議進行보다는 한 세 분 정도 質疑를 듣고 곧바로 그 현장에서 答辯을 하고 그 答辯이 미숙했을 때는 補充質疑를 하는 實體感 있는 質問과 對答으로 監査에 임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意味에서, 慣行上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文化敎育委員會에서는 廢止하고 이번 會期에는 좀 다른 方法으로 하자고 委員長님에게 提議하는데,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은 전에처럼 여기에 있는 委員 15명이 다하고 쉬고 對答하는 그런 것을 廢止하고 한 3명 정도로 그룹별로 끊어서 그 자리에서 對答하고 補充質問하는 實體感 있게 하겠다라는 뜻으로써 會議進行方法에 대해서 異議를 提起하면서 動議案을 구하니까 可決해서 그렇게 進行하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會榮; 네, 지금 金相復 委員님께서 너무 많은 委員님들이 質疑를 한 것을 答辯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세 분씩 質疑를 듣고 우선, 또 答辯을 하고 이런 順序로 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李汪烈 委員; 거기에 대해서 議事進行發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答辯 그룹별로 해 갖고 答辯이 즉시 나와서 다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시간타임을, 넥타임을 줘야 되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 너무 많은 미진한 答辯이 나오는 것이 조금 보기가 모습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相復 委員; 거기서 같이 수정해서 動議案을 만듭시다. 그

뜻은 弘報官으로 계시는 분들이 원체 유능한 분들이 되고 그리고 며칠동안 準備를 하셨기 때문에 구태여 그리 안하더라도 充分하리라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對答의 必要性 資料의 蒐集 等等의 등거래가 있으면 그것은 留保하는 措置를 해야만이 議事進行이 더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다, 왜냐하면 委員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競合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提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받아들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시간을 주는 그런 方法으로 합시다.

○委員長 權會榮; 그럼 이런 方法으로 합시다. 執行部側에서 잠시 答辯할 시간을 요청할 경우에만 우리가 停會를 해서 그렇게 시간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죠?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李汪烈 委員; 質問事項 있습니다. 李汪烈 委員입니다. 하여튼 重複事項은 될 수 있으면 피하겠습니다. 公報官님 그리고 被任職員 여러분께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굴을 알리고 또 우리의 1,200萬 살림살이를 대신해서 弘報의 극대화를 의해서 노력이 많습니다. 우선 수고 많으십니다.

첫번째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言論媒體活用에 있어 갖고 지금 新聞放送 媒體別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版, 首都圈版 등등의 여러 가지 資料가 현재 市廳에 目錄別로 資料가 정리가 되어 있겠지요. 말하자면 어느 新聞에 며칠자 무슨 내용을 실었고 이런 것이 다 目錄이 나와 있을 테고 그것이 또 集中的으로 아마 스크랩을 해 놨을 것입니다. 또 放送의 경우에도 뉴스나 특집, TV프로 등 일자별로 어느 放送에 무엇을 主題로 해서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지, 거기에 예를 들어 테이프면 테이프 또 記錄表, 目錄表면 目錄表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外信言論에 프레스

키트를 어떤 外信言論을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혹은 또 저는 여기에서 이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外信言論을 인터뷰릍 해서 우리 市의 一般的인 狀況이나 特殊狀況을 인터뷰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目錄도 함께 市議會에 提出을 해서 우리가 비치를 해 놓고 항상 어떠한 생각과 知識을, 智慧를 創造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페이지 두번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실적에 記者會見, 市政懇談會, 言論幹部 등등 60回에 걸쳐서 좋은 여러 가지 定例說明會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어느 新間에 무엇을 했는지 일단 資料를 정리해서 提出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實感 있게 判斷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建議案으로 우리가 연례 TV 새해豫算이라든가 인사를 우리 서울市民을 위해서 텔레비를 이용하든가, 라디오를 이용하든가 해 갖고 盧대통령이 연례 TV 새해인사나 國政全般에 그걸 하듯이 市政 全般에 걸쳐서 하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發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弘報物 製作과 效果的 活用에 있어 가지고 外部人士 委囑에 있어서 지금 아까 重複事項이지만 좀 다릅니다. 5名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 委囑이 되셨는데 이제는 地方自治時代가 열렸고 또 市議員들의 아이디어가 또 있을 것입니다. 해서 市議員들을 한, 두명을 여기에 위촉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좋은 意見을, 입장을 反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刊行物을 통한 弘報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計數上 所要豫算이 2億 3,000萬원으로 나와 있는데 2億 3,000萬원이 나온 數値가 제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部에 30원이면 全體가 470萬部인데 급해봐야 이것

이 한 1億 5,000萬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혹은 그 외에 어떠한 事項이 빠졌는지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市政消息郵送網 對象人士 2萬 2,000名. 이걸 全部 뒤에 보면 資料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 市政다이렉트매일(Direct Mail)運營이라 해 갖고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專門職從事者, 地域內人士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市民 1,200萬名을 대표해서 오피니언리더그룹(Opinion Leader Group)에 이것을 보내야 가장 效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것이 나름대로 어떤 基準的인,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과연 이것이 실제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 물론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14萬 5,000부가 과연 잘 配達이 되어서 이것이 反映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를 거꾸로 해서 어떠한 좋은 反映의資料를 나름대로 聚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弘報委員 運營에 있어서 各界人士 18名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市議員 한두 사람 몇 사람을 넣어 갖고 弘報次元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타켓컨트롤(target control)에 未洽하지 않도록 여기에도 委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有線放送 指導管理에 있어 갖고 지금 中繼有線, 音樂有線, 自家有線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有線하고 中繼하고 音樂은 여기 目錄에 유첨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自家 경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本許可, 臨時許可를 막론하고 모는 것을 資料로 우리가 뭔가 좀 알 必要가 있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성실하게 資料를 提示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執行部側에서 바로 卽席에서 答辯을 하시겠

습니까? 時間을 좀 要請하시겠습니까?
○金相復 委員; 答辯을 하시도록 합시다.
○委員長 權會榮; 答辯을 하세요. 지금 세분 質問에 대해서 順序대로.
○公報官 李相鎭; 事實은 제가 公報官이 지금 7個月이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公報官室의 業務機能上 차분히 앉아서 計劃業務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의 業務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所管業務를 자세하게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지 委員님들께서 微弱한 答辯을 이해해 주신다면 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어떤 補充質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關係者들이 答辯할 수 있는 이런 內容을 허락해 주신다면 時間節約上 卽席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李喆鎬 委員님께서 質問하신 補助團體에 대한 支援金額의 法的 根據와 또 報告를 받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自由總聯盟의 豫算이 增加되고 있는 理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市에서는 83年度부터 韓國自由總聯盟서울特別市支會, 그리고 서울特別市 在鄕軍人會, 社團法人 韓國參戰國協會 등 3個 自由啓導團體에 대해서 市費를 支援하고 있습니다. 今年에 油印物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總 1億 4,000萬원을 支給하고 있고 그 중에 1億 400萬원이 韓國自由總聯盟 서울市支會에 支援되고 있습니다. 이 補助金을 支援하는 根據는 韓國自由總聯盟 育成會에 관한 法律 第3條 및 大韓民國 在鄕軍人會法 第6條 서울特別市補助金 管理條例 第4條 등의 規定에 根據해서 支給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中에서 韓國自由總聯盟育成會에 관한 法律은 이런 團體에 대해서는 補助金을 支援할 수 있는 根據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단지 서울特別

市補助金管理條例에 대한 說明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 補助金 管理條例 第4條 「서울特別市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事業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 또는 전부를 補助할 수 있다.

1. 法律에 規定이 있는 경우.

2. 國家補助 財源에 의한 것으로써 國家가 指定하는 경우.

3. 市가 勸奬하는 事業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3個項에 준해서 支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韓國自由總聯盟育成會는 法律에 支援할 수 있는 根據가 되어 있으며 거기에 따른 그런 서울市 條例가 또 法律에 있는 경우에 支援하는 이것에 의해서 83年부터 支援하고 있는데 단지 하나, 왜 83年度에 이 團體를 支援하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支援되고 있던 團體를 支援을 中斷한다는 것은 支援하지 않는 團體를 支援하는 것 以上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團體는 이미 거기에 구지부까지 벌써 되어 있고 거기에 몇십명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있고 事業을 벌여 놓고 있는 이러한 狀況이기 때문에 1億이나 되는 돈이 나가던 團體를 補助金을 中斷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또 이 團體가 高等學生들에 대한 지금은 조금 이 安保槪念이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共産圈하고의 여러 가지 關係, 南北關係, 이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反共, 勝共敎育이 主가 되어 있었던 이 團體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靑年, 中·高等學校 理念敎育을 擔當했던 團體들이기 때문에 國家的인 次元에서 이런 安保的인 理念敎育의 必要性은 있었기 때문에 이 團體가 支援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今年에는 昨年水準으로 저희가 豫算을 올렸습니다마

는 이 關係는 제 答辯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다음에는 그 有線放送業體가 總 3,092가 되어 있는데 그 中에서 臨時許可를 받은 業體가 더 많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전에 臨時會議 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臨時許可라고 그래서 다른 許可가 아니고 本許可가 나가기 전에, 이 順序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許可申請이 들어오면 有線放送은 몇십억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施設이 必要한 許可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許可를 내주지 않고 遞信廳에다가 그 들어온 書類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設備를 하고 이런 有線을 했을 때에 이 放送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전부 檢討를 해 가지고 이런 施設이면 된다 하고 이렇게 通知가 옵니다. 그런데 그 施設을 設置하려면 6個月 내지 1年이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선적으로 遞信部에서 좋다고 된 內容대로 그러면 設置를 해 보십시오 하고 臨時許可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設置가 完了가 되면 이제 設置가 完了됐다고 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遞信廳에 보내 가지고 設置가 完了되었으니 技術的으로 竣工을 해 달라, 저쪽에서 竣工이 되어 가지고 이대로 하면 됩니다 하고 왔으면 그 때에 이제 區廳에서 本許可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臨時許可가 本許可하고 다른 許可가 아니고 結局은 같은 許可이기 때문에 그런 問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臨時許可룰 한 번 내주었는데 期間內에 設置가 되지 않으면 期間을 延長申請이 들어오면 또 한번 이것을 延長을 해 주고 이래서 횟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하지, 이것이 本許可와 臨時許可의 어떤 槪念 차이는 없다고 理解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많은 無許可 業所가 계속 存置가 되는 것은 有線放送許可는 無許可는 한 個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한 個所가 됐느냐 하면 86年에 有線放送法이 女化公報部에서 당시에 制定이 되면서 87年 1月 1日부터 88年 1月 1日까지 猶豫期間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8年 1月 1日 各 市·道에 指針을 내려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까지 이 法이 施行되기 전에 하고 있던 有線放送業體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區域을 나눠라 그래서 合議가 된 業體에 대해서는 許可를 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간에 區域쪼개지는 것이 合議가 안 되었습니다. 내 區域이 적다 네 區域이 적다 이러다 보니까 合議가 안 되고 旣存에 있던 오래된 順序,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優先順位에서 내주게 되다 보니까 合議가 안 된 業所가 한 군데가 지금 관악이, 저 관악 신림동인가 거기에 지금 한 개 業所가 지금 有線放送無許可가 있고요, 나머지 自家有線放送에 대해서는 事實은 이게 좀 團束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自家有線放送이라는 것이 결국 旅館이라든지 또는 호텔에서 카운터에 있는 비디오를 하나 갖다 놓고 틀면서 各 방에다 연결을 해 가지고 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許可가 들어와서 管理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無許可로 設置를 했을 때 旅館을 團束하는 입장이 되는 이런 問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現在 많이 정리가 돼 가지고 지금 245개가 無許可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無許可團束은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한 業所를 갖다 여러 번 이렇게 團束을 하고 許可促求를 하고 警告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늘어났지마는 實質的으로 245個가 있는데, 이번에 國會에 有

線放送管理法 改正案이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아마 通過가 되지 않고 于先的으로 조금 保留가 됐는데요, 그것이 곧 通過가 되면 아마 全國的으로 이 有線放送에 관한 곳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12月 1日부터 今年末까지도 集中的으로 지금 전체 區廳과 本廳要員들로 해가지고 일제히 지금 團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無許可를 最大限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떤 有數業者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團束努力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事項에 대해서는 終決을 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서울市民新聞 配付處 80.5%가 市關聯 職員들 내지는 機關에 나감으로 해서 實質的으로 市民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輿論이 있다하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區廳이라든지 이런 데 내보내는 것이 그 機關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區廳에 예를 들어서 淸掃課는 淸掃課에 나가면 그것을 職員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備置를 하게 됩니다. 또 市民홀 같은 데에는 揭示板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揭示를 하면 市民들이 많이 보시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또 洞에 내려가 가지고 洞에서 班長님들 하고 거기에 전부 統·班長님들한테 10萬 5,000部인가 이것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統·班長님들이 보시고 班常會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區廳에 나갔다고 그래서 區廳職員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機關用은 몇 部가 안 됩니다. 洞을 통해서 班長님들에게 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단 하나 지난번에 저희가 當初에 豫算 올릴 때 公報官室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한 25萬部 뭐 30萬部 이 정도로 저희가 要請을 했습니다. 좀 많이 해가지고 市民들이 많이 보는 것이 좋겠다

고 그랬는데 이번에 2萬部만 늘려 가지고 豫算要請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自體的으로 이것은 저희 內部事情입니다마는 저희 豫算部署에다 抗議도 몇 번 했는데 이것은 많은 다른 데보다도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 1억이면 1億이라도 넣어 가지고 新聞을 몇 部 돈은 1部에 3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市民들이 많이 볼 수 있게 이래서, 市라든지 또 市議會라든지 이렇게 關聯되는 事項 이런 것이 市民들이 많이 아는 機會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저희 豫算編成하실 때 좀 參考하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趙貞順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金相復 委員; 아 이것, 그 자리에서 그대로 대답해요.

○公報官 李相鎭; 네.

○李喆鎬 委員; 여러 가지 소상히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아까 法的 根據나 點檢에 대한 그런 것은 使用處에 대한 것은 그런대로 納得이 됩니다마는 왜 구태여 自由總聯盟의 支援金이 每年 增力된 理由가 좀 석연치 않고 또 아까 國家的인 次元에서 이것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國家豫算으로 해야지 왜 市豫算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疑問點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答辯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統·班長까지 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서울市民新聞이, 기왕이면 20% 일반에 나가는 것을 豫算을 늘려서 部數를 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官廳, 市廳이나 區廳에만 내보내지 말고 이것을 區廳이나 職員들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은 다 압니다. 一般人에게 좀더 弘報를 하려면 一般 市民爲主로 轉換할 用意가 있느냐 하는 것

을 質問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豫算을 들여서 더 部數를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좀 按配위치를 다른 角度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區廳이나 市廳에 자주 드나들거나 거기에 聯關된 사람은 市政의 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轉換할 用意가 있느냐 하는 質問이니까 그 두 가지를 좀더 答辯해 주시고요.

○公報官 李相鎭; 그런데 實質的으로 配付處를 보게 되면 統·班長에게 지금 11萬部가 나가고 있고 14萬 5,000部 中에서 11萬部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2萬 3,000部가 다이렉트매일(Direct Mail)制度에 의해서 社會 各團體에 나가게 되면 13萬 3,000部가 一般人들에게 나가고, 그 다음에 地下鐵驛等에다가 저희가 4,500部를 해 가지고 一般市民들이 보실 수 있게 하면 결국은 市廳과 區廳機關에 나가는 것은 지금 現在 3,000部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一般市民用으로 거의 14萬部 정도가 지금 配布가 되고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配布對象에 대해서는 앞으로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을 저희가 앞으로 市民들께서 더 보실 수 있도록 그 쪽에다 重點的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部數가 官에서만 거의 읽는 걸로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自由總聯盟의 豫算이 증가된 事項에 대해서는 이 補助金이 補償金과 經常補助金으로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經常補助金은 運營費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9年度까지는 經常補助金으로 豫算이 나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90年度부터는 이것이 조금 잘못됐다, 왜냐하면 經常補助金으로 나가서 이 돈이 運營費로 쓰인다면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이 돈이 무엇으로 쓰이느냐 敎

育費 등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補償金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7,000萬원을 補償金으로 저희가 잡아가지고요, 나머지는 전에 나가던 것을 그냥 그것도 運營費도 必要하겠고 했기 때문에 2,000몇百萬원을 그냥 補助金으로 내보냈습니다마는 지금 現在 經常補助金으로 돌려가지고 支援되는 것을 갖다가 敎育費 등 이런 데다가 전부 轉換을 시켰습니다.

○李載震 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을……. 아니, 緊急動議입니다. 지금 現在 이런 식으로 答辯을 하고 質問을 하다 보면 몇 사람 하지도 못하고 결국 오늘 오전 지금 時間이 30分밖에 안 남았습니다. 事實 너무 答辯을 상세하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實質的으로 잘할 수 있는 方法을 硏究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정도로 答辯을 해 주시고 이런 問題는 어떻게 그것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10分 끌면 어떻게 오늘 다른 데 監査質疑할 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빠른 時間內에 效率的인 答辯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金相復 委員; 그렇게 합시다. 그것을 길게 敍述하지 말고 예인가, 노우인가, 잘못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公報官 李相鎭; 감사합니다. 그러면 委員님들께서 제가 答辯드리는 事項中에서 조금 궁금하시거나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그런 事項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말씀하시면 자세하게 說明을 드리도록 하고 要約해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趙貞順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弘報機能에 力點을 두어 가지고 앞으로 業務編成이 되고 意慾的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事項은 저희가 弘報機能이 이제까지 없고 거의 다 報道機能이 主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發展되는 어떤 職制案을 準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方向으로 해 가지고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弘報委員들 委囑結果 背景을 이것은 公報處에서 全國的으로 委囑基準과 이런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各 區廳長과 各 局長들에게 關聯分野의 委員들을 推薦을 받아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每年 更新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弘報實績을 준해 가지고 저희가 30% 範圍內에서 交替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有線放送 40個所 深夜業所의 有害프로 이 關係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强力하게 團束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一般 區廳長들한테 委任된 事項을 廣域으로 處理하는 이 關係만은 市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저희가 특단의 노력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根絶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趙貞順 委員; 잠깐만요. 지금 答辯해 주신 것에 대해서 答辯時 좀 제가 質疑한 것하고 意圖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靑少年들을 위한 프로를 거기다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성인들이 보는 프로를 좀 애들이 봐도 괜찮은 建全한 프로를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公報官 李相鎭; 네, 앞으로 積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李汪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지금 現在 저희가 公報官室 생긴 후로 各種 新聞의 스크랩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랩을 저희 事務局과 連繫해서 委員님들이 恒常 보실 수 있으시도록 저희가 協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모니터는 지금 現在 모니터要員이 4名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둘 交代로 해 가지고 지금 現在 交代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名이 텔레비 지금 셋에다가 라디오 放送이 9個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니터 할 수가 없어서 단지 뉴스와 豫告된 프로 이것만 지금 모니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니터 要員을 늘려 가지고 一般市政 關聯消息까지도 모니터할 計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니터된 內容도 항상 參考로 必要할 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準備를 해서 必要하실 때 提供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弘報物審議委員會 市議員님들 委囑關係는 앞으로…….

○李汪烈 委員; 外信言論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資料要請을 제가 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目錄表를 저희들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題目으로 나간 것인지, 外信言論하고 인터뷰도 여기에 包含이 된 겁니까? 지금 이야기 하시는데…….

○公報官 李相鎭;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目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報道資料提供이 70件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各 新聞이나 放送의 首都圈 뉴스와 서울版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 되는 分量이 하루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달치 정도 되면 커다란 책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目錄 全體를 作成하기에는 상당한 期間이 걸리는데요. 지금 現在 必要하시다면 저희가 스크랩 되어 있는 이런 사항, 또 報道資料 저희가 提供했던 것을 항상 保管하고 있기 때문에 必要하시다면 報道資料 全體를 저희가 必要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새해 豫算과 業務計劃과 關聯해서 市에서 TV出演해서 市民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그런 計劃이 있느냐 했는데 참으로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서 準備를 해서, 全體的인 것도 分野別로 이런 것을 갖다가 되도록이면 TV, 新聞을 많이 活用을 해서 市民들에게 報告를 드리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弘報物審議委員會 委囑關係는 지금 現在 저희가 다섯 분을 모셨는데요, 모신 지가 지금 이제 6個月밖에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1年단위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이 6個月 지나서 1年이 됐을 때 審議委員을 그때 한번 저희가 檢討를 해 가지고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의 豫算關係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市政郵便網이 제대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 弘報物이 도착이 되는지 하는 것을 모니터해서 確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年에 한 번씩 이제까지 했는데 來年度에는 두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저쪽 電子計算所에 있던 輿論調査 要員 3名을 公報官室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輿論調査와 모니터 機能을 해 가지고 效率的으로 浪費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 點檢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弘報委員을 市議員으로 委囑말씀이 계셨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市政弘報議員會에 市議員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性格的으로 公報官 立場에서는 저는 反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李汪烈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市議員이라는 性格보다도 市民代表로서의 兼任職을 하고 있는 兩班이 가서 어떤 案도 提出해 주고 이게 反映을 시킨다는 뜻으로 參考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公報官 李相鎭; 그런데 지금 現在…….

○金相復 委員; 아니, 되었습니다. 그건 말이죠. 李議員님 發言이 개인의 發言이고 우리 市議員의 位相도 있고 그것이 法的으로 갈 수 있느냐 問題에 同意案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公報官 얘기가 맞습니다.
○公報官 李相鎭; 네, 그래서 이 關係는 좀더 저희도 硏究를 해 가지고 報告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有線放送은 資料로 提示하라는 말씀은 監査資料 부표에 有線放送 40個所와 音樂放送 16個所는 그 뒤에 資料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自家有線放送關係는 1,900個 그것은 너무 分量이 많아서 저희가 資料를 提出을 못했는데 必要하시다면 저희가 提出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汪烈 委員; 네.
○公報官 李相鎭; 또 한 가지 豫算關係는……. 10페이지에 있는 所要豫算 2億 3,000萬원 關係 말씀하신 그 事項은 이것은 1年치에 대한 全體豫算입니다. 全體豫算이고요, 지금 現在 밑에 있는 實績 32回 4,730萬 3,000部에 대한 것은 執行實績은 1億 4,000萬원이 되겠습니다. 區分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李汪烈 委員; 2億 3,000萬원이…….
○公報官 李相鎭; 1年치 全體의 것입니다.
○李汪烈 委員; 아니, 部數가 1回, 1回가 月 3回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36回죠?
○公報官 李相鎭; 네, 그렇습니다.
○李汪烈 委員; 36回에 14萬 5,000部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公報官 李相鎭; 네, 거기에 저희가 每番 4面으로 發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면으로……. 그런데 1年에 必要가 있을 때 한 10번 정도 今年에 10번 정도는 特輯이라고 그래

서 그것을 배로 늘려서 8面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李汪烈 委員; 그런 걸 다 해 주셔야죠.
○公報官 李相鎭; 네, 죄송합니다.
○李汪烈 委員; 이 數値로 나오는데 數値가 달라지면 이것이 말이 안되죠.
○公報官 李相鎭;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資料가 저희가 좀 不充分했습니다. 이상으로 委員님 세 분에 대해서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네, 그럼 계속해서 다른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朴善童 委員; 너무 公報官님께 따지는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도와드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朴善童 委員입니다.
現代는 情報化時代라고 합니다. 行政官署에서도 情報化時代에 발맞추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機關이 가지고 있는 各種 資料를 迅速, 正確하게 聚合, 주민들에게 알릴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現在 公報官室에는 市政弘報資料를 計劃한다든가, 國內外의 各種 情報資料를 提供받을 수 있는 人的, 物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개선점이 있다면 어떠한 事項들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이 質問을 하게 된 동기는 所爲 尖端技術 올림픽을 치렀다는 서울市에 1,200萬 서울市民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야 할 公報官室에 10年, 20年前에 購人한 무비카메라 2대, 8年 前에 購入한 비디오카메라 1대 등, 老朽程度가 심한 機資材를 保有, 使用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答辯을 구하는 것이며 이번 豫算에 올라온 무비키메라 1대, 비

디오카메라 1대를 補强하면 完璧한 弘報機資材가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지 答辯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른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먼저 市政新聞을 우리 市議員들 全員에게 郵送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每日公報室에서 作成한 放送이나 新聞報道 그 事項報告를 몇 군데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議員들 全員한테는 못해 줄지라도 한군데씩 그렇게 常任委만이라도 資料를 具備해서 보내주었으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서울特別市職制規程集을 보면 서울特別市와 그 所屬機關職制 가운데 公報官은 公報事務에 관하여 市長을 보좌한다라고 規定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業務限界가 뚜렷해 지지 않고 不分明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그 業務遂行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어서 公報官의 管掌業務를 세분해서 명시하도록 職制規定에 補完하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本委員이 資料要請을 했는데 要請에 대한 區廳別로 수용비용 및 手數料豫算科目에서 統·班長 日刊紙 購讀料, 特定新聞을 購讀하게 한 事例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事實 진정으로 이 市政의 理解增進과 또한 生活情報 次元에서 新聞購讀 支援이 꼭 必要하다면 民主化와 自律化의 趨勢에 맞추어서 統·班長이 新聞을 자유롭게 選擇해서 購讀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新聞代金을 支援해서 어떤 新聞이든지 자유롭게 보고 싶은 新聞을 購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妥當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見解를 말씀해 주시고, 꼭 이것이 어떻게 보면 選擧用 善心攻勢가 아닌가 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을 의식하게 하고 또한 統·班長 日刊紙 購讀費支給을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바입니다.

또한 統·班長의 日刊紙 購讀이 一種의 弘報活動이라고 봐서 公報官께서는 各 區廳別 統·班長이 購讀하고 있는 新聞의 種類와 그 所要經費를 세분하여 書類로 提出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有線放送은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事實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有線放送許可問題가 事實 疑惑을 자아내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히 無許可로 했던 業體를 正式許可로 해 주고 正式的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사람한테는 公告도 없이 그 사람들에게만 惠澤을 준 데 대해서 한번 밝혀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監査關係하고는 相關이 없습니다마는 市政弘報 電光板設置計劃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로운 弘報手段의 開發活用이라는 名目으로 정말 좋은 일입니다마는 30億원을 策定해 놓았는데 現在 市中에는 13군데 이상의 商業用 電光板과 또한 江西區 空港洞에 在來式 電光板이 設置되어 運營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또한 來年度 서울市의 負債가 4兆원에 달할 것으로 推定되고 있는 事項에 來年에 있을 또 4대 選擧도 있고 여러 가지 問題가 있어 보이는데 국민의 疑惑을 사면서까지 30億을 들여서 市政弘報 電光板을 設置하려는 意圖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答辯해 주시고, 可及的이면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다른 委員님 한 분 더 말씀하세요.

○劉起鍾 委員; 劉起鍾 委員입니다. VTR 設置現況을 볼 것 같으면 지금 現在 104대가 設置되어 있는데 設置된 場所가

區나 洞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具體的으로 區에는 몇 대가 設置되어 있고 洞에는 몇 대가 設置되어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 設置한 후에 市民들이나 區民들이나 洞民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체크를 하셨는지 또 체크를 하셨더니 그 呼應度가 만약 좋았을 경우에 더 많이 供給할 用意는 없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하고 싶습니다. 區에 가게 되면 區의 洞長님이나 洞의 職員들이 VTR設置의 必要性에 대해서 많이 要求를 하고 있는데 이번 우리 豫算案에는 얼마나 反映이 되고 있는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다고 했을 때는 漸次的으로 各 區나 洞에 設置할 用意는 없는지 質問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세 분 다 質問하셨죠? 세분의 質問에 대해서 答辯하세요.

○公報官 李相鎭; 먼저 朴善童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을 答辯드리겠습니다. 市政弘報와 國政弘報의 情報體制가 現 體制로 봐서 情報蒐集 機能이 洽足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現在 저희가 職制改正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市의 企劃管理室에다 要請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議會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먼저 發表드리는 것이 좀 뭣합니다마는 그냥 參考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67年度에 公報官室이 생기면서 公報官 밑에 係長만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公報係長이고 하나는 報道係長인데 이것이 명칭이 局이다 보니까 公報係에서는 局에 대한 庶務機能하고 이 쪽에 新聞만드는 機能밖에 遂行할 수가 없는 이런 機能이었고 나머지 全人員이 다 매달려 가지고 新聞, 放送, 스크랩, 모니터 그 다음에 報道資料提供 그래가지고 전부

報道機能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現在 今年度에 이런 어떤 地方議會도 생기고 이제는 開放 民主, 이런 行政體制로 轉換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市의 代辯人的인 性格과 公報, 弘報機能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지금과 같은 體制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弘報課長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이래서 여기서 어떤 企劃弘報 내지는 어떤 輿論收集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現在 저희가 要請을 내놓고 있습니다. 內部的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그게 되려면 敎育文化分科委員會를 거쳐서 議會를 거쳐서 이리로 넘어와서 處理가 되어야 될 事項이기 때문에 參考하셔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機資材 關係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좀 確保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市의 예산관계상 그것밖에 안 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만 넣었는데요. 기구가 擴張이 되면 기구가 늘어서 이제 活性的으로 일하게 되면 저희가 必要한 事項을 많이 確保를 할까 그렇게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李載震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市政新聞 郵送關係로 말씀하셨고 지금 新聞의 스크랩 關係를 常任委로 말씀하신 事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事項에 대해서는 報道內容 分析한 것, 이것을 아침에 이제 常任委員會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事務局으로 일단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職制에는 公報官室이 서울特別市長의 補助機能으로 되어 있는데 內部的으로 事務分掌 規則에 이 公報官의 機能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事務分掌規則을

參考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特定新聞을 統·班長이 이렇게 지금 購讀하는 事例, 이것이 저희가 間接的으로 알기에는 89年度까지는 아마도 本廳豫算으로 되어 있다가 그 후에 區廳別로 아마 豫算編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公報官室에서는 新聞購讀에 관여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公報官室은 本廳內에 있는 新聞을 무슨 新聞社 60부, 어떤 新聞社 60部, 이렇게 해서 各課別로 나누어주는 이 機能만 하고 이 統·班長 關係는 區, 洞行政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有線放送 許可問題 이것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이것이 아마 區로 委任이 되어 가지고 區에서 處理하면서 本廳에서 月報를 봐서 統計해 놓으면서 1年에 한두 번씩 指導, 團束하는 정도의 範疇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은 저희가 이번에 일제히 本廳과 區廳과 나누면서 또 事務 정리하면서 特別點檢班을 編成해서 徹底하게 하여 가지고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報告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市政弘報板 設置計劃, 이것을 說明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于先的으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92年度 豫算審議常任委員會를 하실 때에 거기에 대한 計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단지, 지금 現在 이것을 構想하게 된 원인은 물론 지금 現在는 贊·反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좀전의 職制하고 關係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관주도로 끌고 나간다 또는 이제는 무슨 補完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하나의 閉鎖性 있는 行政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地方化, 自由化 되어서 地方議會도 이렇게 構成이 되고 그랬

으니까 市도 뭔가는 公開行政的으로 해서 市民들에게 報告하고 이런 것을 公開行政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積極的인 行政次元에서 市에서도 뭔가는 이런 弘報揭示板을 크게 만들어서 迅速하게 報告해야 된다는 이런 次元으로 構想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事業 計劃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事項은 일단은 豫算審議 過程에서 자세하게 報告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參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劉起鍾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現在 VTR設置는 區廳에 22個所에 한 개씩 洞事務所에 55個, 다음에 敎育場 및 事業所에 25個 해 가지고 지금 104個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市廳豫算으로 設置가 된 것이 아니고 市民홀에 오시는 民願人들, 市民들의 무료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달래드린다는 하나의 奉仕的인 그런 어떤 行政 이런감과 또 市에서 비디오映畵라든지 이런 것을 찍었을 때 틀어드린다는 이런 의미로 해서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전에 있던 어떤 區의 區政諮問委員會 또는 區發展 단체 이런 데서 아마 寄贈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는 洞도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VTR을 좀 設置를 해서 시에서 만드는 弘報資料 이런 것 밝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事項은 劉起鍾 委員님 事項을 저희가 愼重하게 檢討를 해서 한 번 施策에 反映해 보는 方向으로 그렇게 하고, 단 하나 寄贈된 物件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寄贈이 일단 들어오면 이것은 관급자재로 저희 官資財로, 財産으로 일단 收入을 잡아서 저희가 管理하고 있다는 것만 報告를 드리면서 이상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劉起鍾 委員; 104대가 전부다 寄贈된 것입니까?
○公報官 李相鎭; 그 중에서 8대만 市豫算으로 이것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마 區廳에서 處理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把握을 못하고 있고 間接的으로 아마도 그렇게 區를 도와주는, 市民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確保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그럼, 다음에 또 質疑하실 委員님…….
○金相復 委員; 卽席 答辯합시다. 딱, 한 가지만 물을 건데요. 지금 現在 公報官께서는 저희 委員會에서 얘기를 하면 좋은 意見입니다, 좋은 意見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전번 常任委員會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質問하겠습니다.
지금 現在 班會報가 弘報物에 속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속합니까?
○公報官 李相鎭; 그것은 弘報物이 아니죠.
○金相復 委員; 弘報物이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속합니까?
○公報官 李相鎭; 그것은 生活情報 傳達紙로 알고 있습니다.
○金相復 委員; 아니, 班會報 그 자체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알려주는 義務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번 常任委員會席上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質疑를 하고 答辯을 하실 때에 지금 現在 施行하고 있는 班會報는 總務局 管轄所管이 되어 있기 때문에 公報室에서는 關與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적어도 役割分擔을 할 수 있는 執行機關이 그 役割은 적어도 제몫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公報官께서는 可及的이면 總務局과

얘기를 해서 豫算이 어차피 執行되는 것, 管掌業務에 대해서는 公報官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죠?
○公報官 李相鎭; 네.
○金相復 委員; 그렇다면 지금 오늘 業務報告 가운데에 公報處가 有線放送 가운데 中繼有線과 音樂有線은 지금 現在 各區廳長所管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다시 그것이 業務가 過重되고 또 미흡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혹시나 不協和音이 있을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뺏어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봤을때, 班會報는 적어도 서울市의 모든 問題를 얘기해 줄 수 있고 의견을 收斂할 수 있는 가장 基礎的인 問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公報處에서 管掌해야 할 이 業務를 뺏어오지 못한 그 低意가 어디에 있으며 그 方策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번에 常任委員會할 때 분명히 다음에 그것을 答辯을 해 주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質問하는 것입니다.
○公報官 李相鎭; 네, 答辯드리겠습니다. 제가 業務報告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事項을 넣어 가지고 事前에 報告 못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後에 이 問題에 대해서 內務局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班常會報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政府 中央部處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公報處所管이 아니고 內務部 所管으로써 內務部에서 住民組織 내지는 全國的인 어떤 行政組織的인 그런 關係로 인해서 班常會를 아마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消息紙로써 處理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첫째 그 이유이고, 두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弘報物制作審議委員會에 班常會報를 넣어 가지고 內容이나 檢討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內容을 알아 보니까 25日 班常

會를 한다면 內務部에서 政府에는 이러 이러한 事項이 班常會報에 登載後 指針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 市에서는 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하루 전 내지 이틀 전에 아마 그것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本廳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指針을 넣어 가지고 區에다 내려가 가지고 區에서 아마 班常會報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金相復 委員;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班常會를 組織하고 運營하는 內務部 指針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構成要件 該當性에 속하는 거예요. 班會報 그 자체는 班常會를 하는데 班會報를 해라 하는 法律的 근거도 없지만 보다 效果的으로 住民이 同參의식을 가지고 그 地域의 必要性, 問題, 要求事項을 表出해 내고 다른 데 행하는 일을 보면서 比較, 對照하기 위한 效果的인 弘報方法이라니까요. 그 弘報方法을 지금 現在 管轄部處가 보았을 때에 公報處에서 해야 되는데도 그것이 內務部 所管이다 얘기하고 또 25日이고 班常會 하기 때문에 시차적인 문제는 그것은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班會報를 보게 되면 옷을 입는데도 현대사회는 디자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옛날처럼 두르마기처럼 입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다면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市民들도 믿고 있는 公報處가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되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機能的인 요소는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역할은 분담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質問을 한 거예요.

○公報官 李相鎭;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후에 저희가 內務局行政課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항은 그쪽 部署하고 협의를 하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 자

체적으로 그 部署하고 저희가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일단 內務部와 公報處에서 업무조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각 市道에서도 이것을 文化公報室, 공보실에서 취급하지를 않고 市·道에서도 지방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金委員님 말씀을 저희가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말씀을 內務局에다 넣으면서 일단 중앙부처에 건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相復 委員; 저의 質問과 答辯 끝내고요. 金委員 말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으면 金委員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金委員이 얘기해도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하는 거요. 내가 봤을 때 자기 제몫도 못 찾아먹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小市民의 意見입니다.

○公報官 李相鎭;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하실 委員님…….

○李汪烈 委員; 제가 잠깐 하나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市 市廳에서 國內新聞하고 外國新聞하고 과연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數量的으로 가지수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出入記者들, 참 고생하시는 분도 出入記者이고 公報官은 出入記者분들 융성한 待接도 해 줘야 되고 때로는 그 양반들 活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海外에도 나가시고 이러는데 이 경우가 單獨으로 나가서 과연 企劃物 取材로 해 가지고 企劃取材가 잘 되어 갖고 어떠한 效果의 極大化를 기해 왔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보니까 14名 豫算案 5,000餘 萬원은 되네요. 그런데 같이들 同行해서 나가는 것인지 市廳에 어떤 使節團이라 할까, 혹은 見學團이라고 할까, 視察團이라고 할까, 그래서 어떤 영향이 또 어떤 基準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선 그 자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나 해서

우리 記者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必要하면 더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쳐도 가공하는 것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次元에서 한번 말씀을…….

○公報官 李相鎭; 지금 現在 市에서 購讀하고 있는 新聞은 17가지가 됩니다. 또 記者분들이 外國나가는 것은 昨年까지는 外國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今年에는 서울市 豫算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來年부터는 記者분들끼리만 어떤 觀光으로 外國나가시는 것은 記者분들이 言論機關에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市에서 어떤 事業計劃이나 프로젝트가 있어 가지고 나갈 때 그러면 言論社와 協調를 해서 이것이 풀로 取材 價値性이 있느냐 이것을 判斷하면 그때 言論社와 協議를 해서 記者분들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推進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원래 12時까지 하려고……. 워낙 時間이 促迫해서 委員님들이 아직도 質疑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2時 30分까지 시장하시더라도 委員님이나 執行部側에서 理解를 하시고 12時 30分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세요.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常任委員會 所屬보다는 言論媒體를 통한 市政弘報를 活性化하는 側面에서 現在 記者室에서 編輯되고 있는 記事內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推測記事誤報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公信力 損傷防止라고 되어 있지만 얼마 전에 D일보인가 어디에서 나온 記事內容이 江南區 일대에 언주로 綜合터널工事라고 있었는데 지금 現在 서울市 綜合建設本部에서 工事를 하다가 1年째 中斷되고 法廷訴訟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市에서 잘못을 인정

하고 工事를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에서 해 주겠다 하는 記事가 나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지금 問題化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 綜合建設本部 關係者에게도 質疑를 해 본 結果, 이것은 전혀 誤報다라고 지금 判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公報官室을 통해서 市民이 알 권리를 신장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事前에 물론 綜合建設本部側에서 問議를 해 본 結果, 記者분이 여자분인지 어떻게 되시는지 안 계신다고 그래 가지고 住民들한테 충분한 答辯을 못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이나 誤報라고 만약에 이것이 記者와 또는 우리 公報官室에서 事前協議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市民에게 弘報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答辯을 해 주시고 우리 文化敎育常任委員會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件數가 있었습니다. 雲峴宮買人 同意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活動을 하고 있는데 벌써 어느 日報에서는 市에서 上程한 그런 內容이 없는데도 新聞에는 그런 上程內容을 報道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事實과 전혀 맞지 않는데 앞으로 모든 市政活動이나 또는 우리 議政活動을 통해서 좀더 市民들에게 市政을 올바르게 弘報할 수 있는 그런 方向側에서 어떤 좋은 腹案이 있으시면 公報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하실 분, 말씀하세요.

○曺相彩 委員; 曺相彩 委員입니다. 同僚委員들께서 좋은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監査資料要請을 저는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는 資料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理解가 안 가기 때문에 質疑를 합니다.

市民의 알 權利 신장시킨 執行實績, 市政弘報實績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內容을 보면 報道資料提供, 記者會見懇談會, 刊行物을 통한 弘報, 映畵에 의한 弘報, 서울發展相 寫眞展開催, 講演 및 視察을 통한 弘報, 市政消息 郵送網 連營 이렇게 해서 자세히 資料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弘報하면 成功케이스, 다시 말해서 잘된 것은 자랑스럽게 弘報가 잘되고 있는데 失敗케이스,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잘 알려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弘報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해 왔고 또 우리가 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市民을 위하고 庶民을 위해서 과연 公報室에서는 弘報活動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든다면 老人福祉. 靑少年善導 이러한 問題를 弘報로써 誘導를 해 가지고 事業이 지금 進取되고 있는가, 그래서 질문을 要約해서 하자면 老人福祉 다시 말해서 社會福祉나 靑少年 善導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지금 實施를 하고 있는가, 있으면 答辯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公報室에서는 새로운 計劃을 세워서 事業을 展開할 수 있는 그런 用意는 없는지 答辯을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른 委員님 한 분만 더 말씀하세요. 質疑 계시면……. 그러면 두 분에 대한 것을 먼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相鎭; 委員님들께서 꾸중하시더라도 솔직히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公報官室이 아까도 職制問題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公報官室에 이제까지가 지금 現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來年부터는 좀 바꿔볼까 저희가 計劃을 해서 委員님들

께 協調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委員님들이 指摘하시고 忠告주시는 이것이 전부 맞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市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該當局을 指導를 해서 무슨 老人福祉면 老人福祉에 대한 內容과 事業構想하는 것을 이 弘報媒體하고 連結이 되면서 뭔가는 이것을 갖다가 構想을 해 가지고 市民들에게 자세하게 나가게끔 이렇게 하고 또 積極的으로 開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公報官室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제까지는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 新聞에서 얻어 맞았고 放送에서 얻어 맞았다 그러면 이것은 解明을 빨리 該當部署에서 해야 되는데 該當部署에서는 못합니다. 그러면 該當部署에다 빨리 連絡을 해서 우선 내일아침 新聞은 公報官室에 오늘 저녁에 오거든요. 한 8時 10分쯤이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받아 가지고 이게 도대체 사실이냐, 該當局에다 팩스로 넣어 주면서 局長, 課長을 막 電話로 찾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 집에 가 있거나 어디가 있다가 그제서 들어오면 이제 만들고 그러면 밤 11時, 12時에 만들거든요. 그래서 言論社를 가라고 그러면 言論社에 잘 모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럼 밤 12時, 1時, 2時, 1時 前에 가야 돼요. 1時 前에는 꼭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公報官이 하다 못해 가서 무릎꿇다시피 이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니까 該當局의 說明을 들었더니 이런 內容입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이런 機能 쫓아다니는 機能밖에 事實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서울市의 일단 地方化, 開放化에 이제는 맡으려면 公報官室에서 뭔가 積極的으로 弘報機能이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全體的인 企劃記事 예를 들어서 産業에서는 産業資料는 나오지만 全體

的인 서울市長님의 어떤 市 展望의 意圖라든지 또는 이런 全體的인 것에 대한 企劃, 弘報는 뭔가는 큰 덩어리로 만들어 내는 데가 어디가 있어야지 이것이 전혀 없단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機能이 必要하다고 그랬고 지금 전부 말이에요, 지금 現在 예를 들어 孫馥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事項이나 지금 現在 曺相彩 委員님이 말씀하신 이 事項도 그런 말씀이거든요. 뭐냐 하면 대처하고 잘못됐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고 지금 완전히 擴散되지 않게 뭐가 났으면 그것을 解明해서 積極的으로 修正記事를 내고 뭐하고 이것까지 못 나가고 있어요. 于先的으로 그것이 다른 新聞에 波及되지 않게끔 일단 만들어 가지고 다른 新聞에. 전부 連絡하고 이건 그게 아니고 하는 이런 機能이고, 老人福祉이면 老人福祉에서 그쪽 該當部署에서 積極的으로 開發해서 PR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될 때 여기서 全體的인 社會福祉파트로 묶어 가지고 저희가 몰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중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機能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問題點이다 하는 것을 저희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職制改正案을 弘報파트를 넣어 가지고 企劃室에서 지금 審議로 있고 아마도 議會로 곧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文化敎育委員會에서 委員님들 정말 도와주시면 뭔가는 하여간 힘 닿는 대로 노력을 하고 이제까지의 잘못된 어떤 過誤나 서운하셨던거나 미흡한 것은…….

○金相復 委員; 잠깐만요.

○公報官 李相鎭; 네.

○金相復 委員; 이번에 純機能을 하기 위해서 革新的으로 아주 말이지 職制改編, 필요한 部署 豫算같은 것, 다 올라옵니

까?

○公報官 李相鎭; 네, 아마 그럴 것입니다.

○金相復 委員; 制度問題라든가…….

○公報官 李相鎭;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相復 委員; 그것만 있으면 可能하다 이거죠. 지금 現在 얘기했던 것은…….

○公報官 李相鎭;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弘報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報道擔當官하고 弘報擔當官으로 나누어 가지고 弘報파트를 弘報企劃파트로 補强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이게 事實 넘어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한데, 하여간 이제까지 잘못된 점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분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公報官室에 대한 事務監査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終決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와 答辯이 끝났으므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15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

權會榮　金相復　曺相彩　劉起鍾

孫允準　金熙健　李鍾學　孫馥

李汪烈　張精一　金仁雨　李喆鎬

趙貞順　朴善童　李載震

○出席專門委員

鄭永國

○被監査機關參席者

公報官　　李相鎭
弘報計劃擔當官　　金丙一